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생사 놓고 넘어설 때 피안에 도달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된 그 세월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오래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 아닌 세월이 이렇게 가는 동안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또 똑같이 차원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사회에 나가서든가 또는 가정에서라든가 자식을 기르는 데서라든가, 자기가 해 나가는 소임에 따라서 모든 걸 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세상이 좋아질 테고, 자신들도 대대손손이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되자고만 빌려 다니는 안됩니다. 잘되는 게 있어야 못되는 게 있고 못되는 게 있어야 잘되는 게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만 있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만 있어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반이렇게 걸쳐놓고 교차로를 넘나들면서 고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저 나는 한마음선원엔 그냥 다닌다. 이런 정도라면 하신다면 내가 섭섭하죠.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생을 두고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마음 즐기고 모든 것을 버려서, 이렇게 고구마 같고, 난장이 같고, 또 하나도 보살 것 없이 못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잘나게 태어날 수도 없고 못나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해서 못나게 태어난 것도 재주령 어리 아닐까요? 허허허...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하나요, 부처님 법도 하나니까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여기 여러분 수만 명이 다 깨우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며, 일법(一法)이며 바로 차이없는 도리를 알게 된 등근 원리입니다. 이런 고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또는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씩은 열심히 뛰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이랬다구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하고 가시는데요,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요.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한 번, 똑같이 죽어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리입니다. 한생, 한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 가정이 소임을 다 따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면 회사, 장사면 장사 이렇게 제가꿈들 다 가지고 있는 소임에 따라서 내가 자꾸 타독을 하면 그걸 개척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걸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애를 필요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셔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은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천차만별의 소임이 다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간다고 해 봅시다. 그 연구진들이 제가꿈들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고, 또 연구 결과가 이 세상에서 보람있는 연구가 된다면, 개개인의 연구지만,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열 가지를 연구했다면 그 열 가지 연구한 걸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이 종교지 인간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미래에 모두 공덕이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공생(共生)이면서,



그림 · 최주현

## 우리 없이는 보살도 부처도 없어 마음 발전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

공체(共體)면서, 공심(共心)이면서, 공용(共用)이면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한 번씩은 다 돼 봤다고 생각합니다. 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계단을 하나 하나 밟고 올라오지, 그냥 거기서 날아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 세상을 다 살리는 공부

누구나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참단의 위치까지 다 그냥 한 발 한 발 밟고 넘어왔단 얘깁니다. 이렇게 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라

온 고등동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만 이 진짜 사람으로서 모든 일체 만물을 다 먹일 수가 있고 되내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리가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먹고도 떡 하나가 되내라." 하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는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주 옳은 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천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길러도 그냥 우뚝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듯이 자라지 않았든 자랐든 또 더 자랐든, 더 자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지 않은 사람 때문에 더 자란 사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도리가 현재 우리 삶에 이렇게 닦여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돌아간다면, 나중에 얼마나 손해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무우 종자면 무우 종자, 즉 배추 종자면 배추 종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종자! 그거를 불가(佛家)에서는 종성(種性)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佛性)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불성이 말합니다. 그 똑같은 불성에서 모습이 어떻게 모두 달라지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습이 모두 달라야만이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살 수 없죠, 하나로서는.

### 내 불성은 다 갖춰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깨나 오직 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물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하면서 세월 아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계단을 하나 하나 밟고 올라오지, 그냥 거기서 날아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는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주 옳은 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천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 잡아야 합니다.

높아졌다고 '나는 이만큼 높으니까' 하고 야만과 야상을 갖지 마시구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딱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으로 딱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다 먹인다고 자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눈물 날 일이지요, 뼈가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 네들이 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 몸이 가루가 돼서 뿌려져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한층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유아무야 하지 마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난 이렇게 말을 하고도요, 만날 다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또 있고 뭐가 또 남아 있구요. 그것을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이 세상만사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 오로부터는 서로 토론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공평 부상으로 가는데 주변 경치도 좀 구경을 못 하고 쪽간다고 합시다. 그럼 쪽 간다고 그냥 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죠. 급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길 주변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심어져 있는데, 누가 추수를 다 허들어서 다 나눠 먹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거를 다 알려면 우리가 서로 토론이 필요합니까. '해주시오'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해주시오'는 아직까지 자기 뿌리를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그런 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도중에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절실히 체험을 하고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참선이니 좌선이니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가 부르려면 그저 닦치는 대로 잡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고프다고 날더러 자꾸 먹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따르니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수 없지만 급할 때는 언제나 내가 여러분과 하나로 (양 손바닥을 서로 붙여보이시고) 돼 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하나가 그릇된 거든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더 빨리빨리 크시란 얘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고 듣고, 자기가 현실에 이렇게 하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점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임입니다.

: :  
 주머니 속 대장경

20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지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인의 선사 모음집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대의 울성 '선상천하유아독존'
101 - 교리·입문편	102 - 교리·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화편	501 - 문화·학술편	502 - 문화·학술편
<b>보르헤스의 불교 강의</b>	<b>법수로 배우는 불교</b>	<b>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b>	<b>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b>	<b>참선요지 (參禪要旨)</b>	<b>방편개시 (方便開示)</b>	<b>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b>	<b>허공의 딸꼭질</b>	<b>불성이란 무엇인가</b>	<b>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b>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야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06 발행 242쪽 / 값 5500원	이재열 지음 06 발행 196쪽 / 값 4500원	조필 스님 편역 06 발행 178쪽 / 값 4000원	혜능 스님 엮음 06 발행 300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鼎) 스님 옮김 06 발행 278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鼎) 스님 옮김 06 발행 278쪽 / 값 5500원	민형조 지음 06 발행 336쪽 / 값 6000원	이종찬 지음 06 발행 282쪽 /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06 발행 196쪽 /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06 발행 182쪽 / 값 4500원